

2019





“

---

2019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결과자료집

”

## 목차 Contents

# 1.

## 2019년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매칭데이 — ‘예술인을 Job아라!’

1-1	매칭데이 소개	08
1-2	‘예술인을 Job아라!’ 발자취	10

# 2.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2-1	사업 소개	14
2-2	<굿모닝 예술인> 발자취	16

# 3.

## <굿모닝 예술인> 성과공유회 ‘See You Again 예술인X기업(기관)’

3-1	성과공유회 소개	100
3-2	성과공유회 현장 스케치	

#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

Since 2016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열악한 창작 여건과 생활실태를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2016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가다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부산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창작환경 조성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 1.

## 2019년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 <굿모닝 예술인> 매칭데이

—

#### ‘예술인을 Job아라!’

#### 행사명

2019년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매칭데이  
— ‘예술인을 Job아라!’

#### 일시

2019. 4. 26 (금) 13:00 - 19:00

####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일원

#### 행사내용

- 참여기업(기관) 유형별 협업 프로젝트 소개 및 라운드 테이블
-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최종 매칭을 위한 현장인터뷰

#### 참여대상

총 130명  
(참여기업·기관 관계자 29명, 참여예술인 1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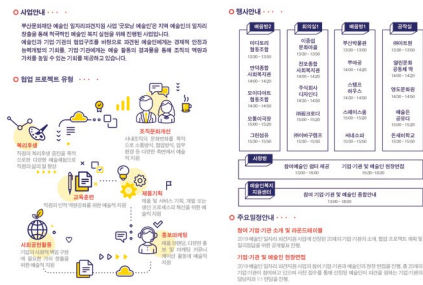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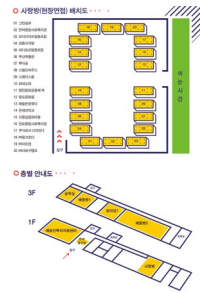


# 1-1 매칭데이 소개



행사 포스터

리플렛



예술인 일자리 매칭데이 ‘예술인을 Job아라!’는 올해 3회차를 맞았습니다. 예술인의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이 기업·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여 기업·기관의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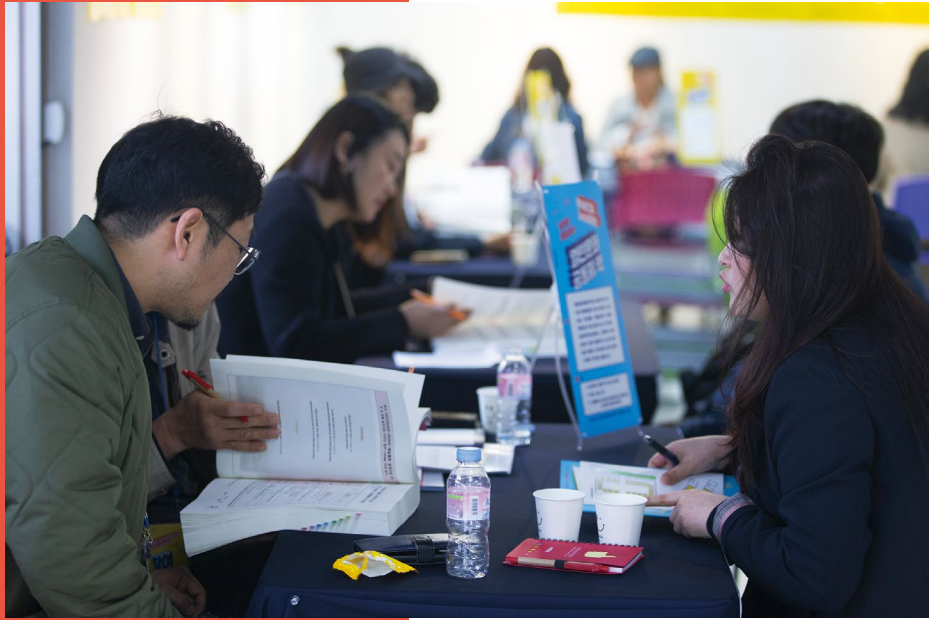
## 1-2

### ‘예술인을 Job아라!’ 발자취



부산지역 약 100여 명의 예술인들이  
<굿모닝 예술인> 매칭데이에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부스

부산 지역 20개의 기업·기관과  
부산예술인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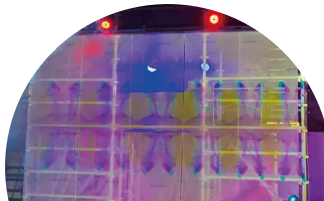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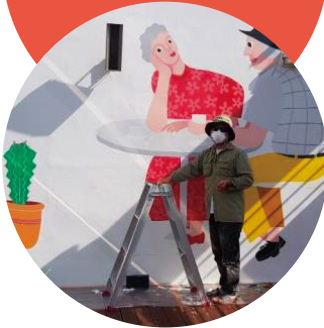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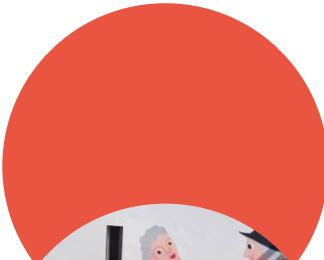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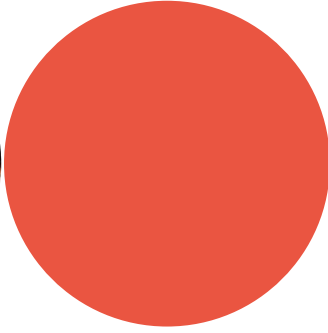
## 2.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재)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국악, 사진,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직접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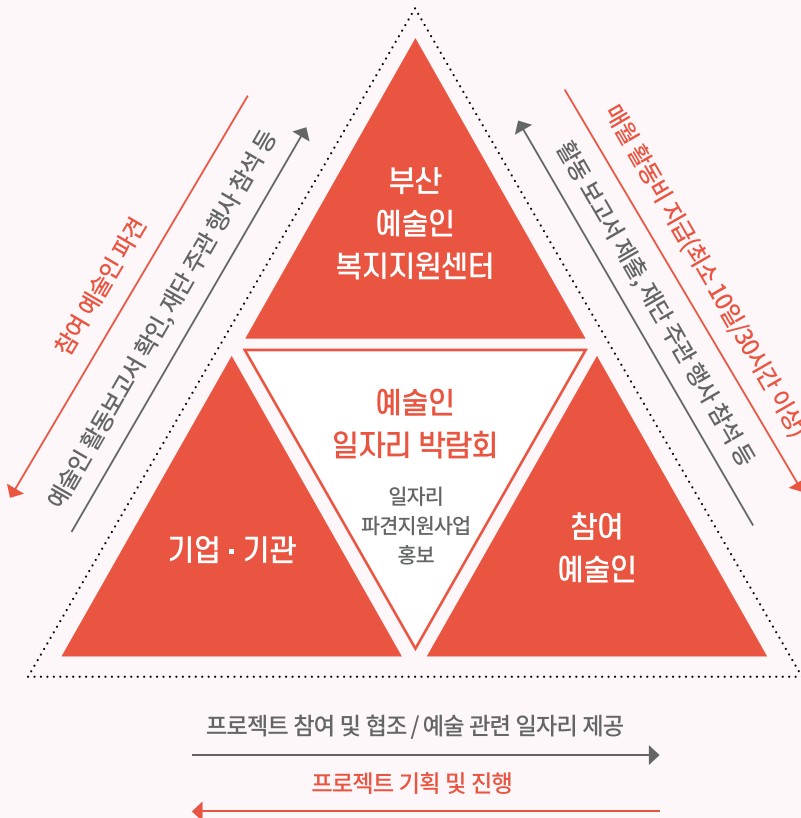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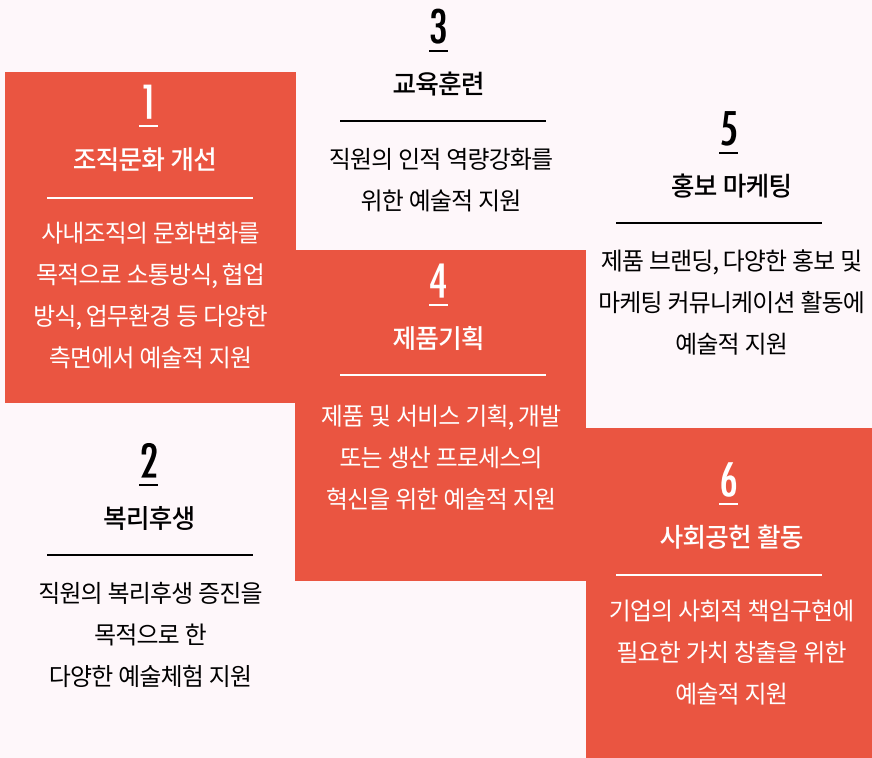
### <굿모닝 예술인> 사업 소개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부산지역 예술인을 직접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기업·기관에게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 [구상도]



## [프로젝트 유형 소개]



## [기대효과]



## 2-2

### <굿모닝 예술인> 발자취

#### 01 18p

기업 그린섬유  
매칭예술인 임상훈  
예술장르 미술, 사진  
프로젝트 유형 홍보마케팅

#### 02 22p

기업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매칭예술인 김나희  
예술장르 영상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 03 26p

기업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매칭예술인 옥진화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 04 30p

기업 모퉁이극장  
매칭예술인 김효영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05 34p

기업 미디어리협동조합  
매칭예술인 김혜영  
예술장르 음악  
프로젝트 유형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06 38p

기업 부산박물관  
매칭예술인 이미주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사회공헌활동

#### 07 42p

기업 부아공  
매칭예술인 이민결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08 46p

기업 스태프하우스  
매칭예술인 심성아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 09 50p

기업 ㈜스페이스 움  
매칭예술인 김범수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사회공헌활동

#### 10 54p

기업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매칭예술인 홍석진  
예술장르 미술, 영화  
프로젝트 유형 홍보마케팅







11 58p

기업 열린문화공동체 딱  
 매칭예술인 송기철  
 예술장르 미술, 사진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12 62p

기업 영도문화원  
 매칭예술인 고정화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조직문화, 복리후생  
 사회공헌활동

13 66p

기업 ㈜예술은공유다  
 매칭예술인 최정은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14 70p

기업 온새미학교  
 매칭예술인 박은주  
 예술장르 연극  
 프로젝트 유형 조직문화, 교육훈련

15 76p

기업 이중섭문화마을  
 매칭예술인 강미혜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복리후생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16 80p

기업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매칭예술인 남진우  
 예술장르 사진, 영화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17 84p

기업 주식회사 디자인디  
 매칭예술인 박가범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조직문화, 제품기획  
 사회공헌활동

18 88p

기업 주식회사 핑크로더  
 매칭예술인 이호선  
 예술장르 사진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19 92p

기업 주식회사 아트현  
 매칭예술인 전해진  
 예술장르 미술  
 프로젝트 유형 제품기획, 교육훈련  
 사회공헌활동

20 96p

기업 주식회사 이바구캠프  
 매칭예술인 이영아  
 예술장르 사진  
 프로젝트 유형 복리후생,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sup>1</sup>  
협업 기업·기관 소개

**그린섬유**

유치원 원복 및 티셔츠, 단체복 제조 업체로서 제품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 제작에 예술인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

<sup>2</sup>  
참여 예술인 소개

**임상훈**

현재 회화·설치·사진 작업을 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이다.  
다양한 체험과 표현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대상을 바라보기에 앞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찰과 관심을 가지고 발견하는 유희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sup>3</sup>  
협업 유형 및 내용

**홍보 마케팅**

제조 생산에는 십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젊은 감각을 따라가지 못해 협업하게 되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련된 제품 촬영과 온라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갖추게 되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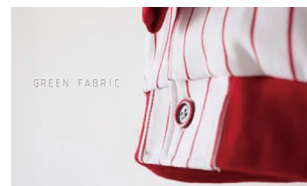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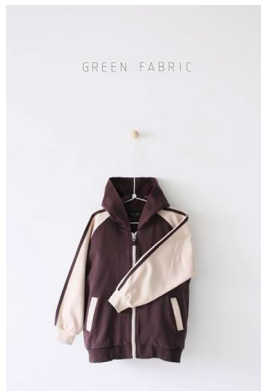
### 1 기업 로고 및 제품 엠블럼 제작

단순히 기업의 정체성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른 기업, 건강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각적 상징물을 제작하여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2 제품 사진 촬영 및 편집 디자인

그린섬유 브랜드의 전체 제품 이미지 컷 촬영.  
매력적인 제품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소비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하여 가장 먼저 임했던 작업이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제품 디자인

아동의류를 취급하는 기업인만큼 꿈을 활용하여 귀여운 캐릭터를 제작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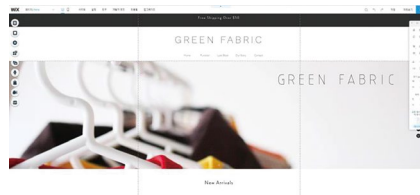
\* 위 실물 사진은 제품 출시 전 예시



### 4 기업 홈페이지 제작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웹 사이트 제작.

온라인상에 기업의 사옥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이 직접 회사를 내방하지 않고도 그린섬유를 ‘들어다볼 수 있는 창’이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통로들을 통해 끌어들이는 소비자들을 최종적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온라인에서 기업의 얼굴이자 디지털 마케팅의 중심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웹 사이트 제작 작업을 먼저 하였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제조 생산만 해도 되는 시대를 살다가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타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업이 가진 장점과 예술인이 가진 장점이 만나 최대의 시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한 개인이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생각한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더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개발할 시간에 그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는 게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생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홍보마케팅을 예술인 덕분에 잘 보완할 수 있었다. 예술인의 젊고 세련된 사진 촬영과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면서 나의 낡은 감각으로 괜히 시간을 버리지 않길 잘했구나 안도했다.

이것저것 예술인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한다.

### 2 예술인 소감

‘굿모닝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예술 활동 영역의 범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서로 대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린섬유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불어 옆에서 같이 힘써주신 ‘굿모닝 예술인’ 전소영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만덕마을’, ‘함께 만드는 만덕! 함께 누리는 만덕!’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문화와 교육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만덕 지역의 문제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김나희

영상·디자인 크루 하마맨션에서 영상을 만드는 비디오 하마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기 같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편집을 통해 비디오로 실험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래, 영도, 만덕 등 부산에서 의미가 있는 마을들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홍보 마케팅

- ① 만덕지역의 만덕천이라는 공간에서 생태하천, 청소년들의 교육,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만덕동만의 마스크트로 나아가길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기록으로 아카이빙 하고자 함.
- ② 본 기관 차원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간의 변화’, ‘생태하천으로 변화가는 만덕천 히스토리’를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영상 작업이 진행됨.
- ③ 여러 공동체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이 만덕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지 현장감 있게 만덕 마을 스토리로 담아냄.
- ④ 제작된 영상을 통해 약취로 심했던 만덕천이 생태하천으로 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활용될 것임.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1  
6월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작년에 짧게 만들었던 만덕천에 대한 영상이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확장시킨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서로 잘 맞았다.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의 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방향으로 큰 틀도 일찍 잡고 나니 웬지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올 것만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2  
7월

기세 좋게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따라다니려고 단체 채팅방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워낙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 다같이 모이는 회의 시간 잡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어쩔 수 없으니 조금 느긋하게 생각해보기로 한다. 대신 조금 다르게 다른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했다.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 하며 그들의 기억 속 만덕천과 지금 만덕천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한 작업이라 그들의 입으로 듣는 이야기들은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제각각인 부분도 많았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조그마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보기로 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3  
9월

이러다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의 활동은 따라다니지도 못한 채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쩌나 초조한 마음에 물어뜯은 손톱 끝이 다 닳아갈 무렵,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운동본부가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역시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전부 모이지는 못했지만 회의를 가지고 지금 운동본부의 문제점과 만덕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운동본부에 들어와있는 여러 단체들의 대표들과 인터뷰도 진행하기로 했다.



4  
11월

만덕 생협이 만덕천에서 환경장터를 열었다. 부스를 하나 열어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그 후 진행된 회의에서 운동본부 위원장을 정하고 단체의 대표들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몇 개의 단체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만덕의 모든 주민들이 알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왔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복지관에서는 보편적으로 진행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글과 사진 형태로 남긴다. 전달적 측면에서 한계가 많아 최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시도하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이어져 영상 기록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란 쉽지 않다.

예술인을 통해 생동감 있고 의미 있는 영상 기록을 통해 기관에서 생각하는 의도와 방향성을 담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는 점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 2 예술인 소감

여러 사정으로 처음 생각했던 프로젝트와는 조금씩 다른 일정과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고, 작년에 협업하며 만덕과 만덕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점도 결국 오만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하기에 계속 상황은 변하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관의 도움으로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에 속해있는 단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자의 방법이나 원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만덕과 만덕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점 하나는 모두가 같다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 어떨 때는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마주 앉으면 명쾌하고 쉽게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또한 작년과 비슷하게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기억 속의 만덕이라는 마을과 만덕천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여전히 즐거웠다. 이러한 기록은 길게 모이고 모일수록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안에서 '시각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로 문화예술교육, 거리예술, 전시, 축제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벽화작업, 빈집아트, 재미예술공방 등 실험적인 작업들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또한 광안리 및 조방아트마켓과 지역별로 차별화 된 아트마켓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옥진화

생산과 소비로 인한 문제점 및 환경미술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기획, 홍보 마케팅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의 차별화된 체험 상품 및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진행했고, 바다, 광안리 등의 대표이미지를 표현한 아트상품 제작 및 체험을 위한 상품킷 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상품 홍보 및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셉촬영을 하였고 모이다협동조합의 다양한 기획행사(아트마켓, 문화활동)에서 홍보를 위한 디자인을 제작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새미예술공방에서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의 작가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모임 및 문화 활동을 가졌다. 함께 화분을 심어보며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진행할 협업들에 대해 회의도 나누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고 미래의 결과물을 더욱 기대되게 한다.



### 2 에피소드 (2)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기획행사 문의가 많다. 이번엔 부산시청과 함께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기획과 진행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총괄 컨셉디자인 협업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굿모닝 예술인>은 기업과 작가가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업이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에 홍보 관련 디자인이나 기획에서 도움이 필요했는데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상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조형적인 부분의 설계나 패키지디자인을 진행하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예술인과의 협업이라서 소통을 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율이 융통성있게 잘 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기업의 니즈와 예술가의 감성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현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문화향유 및 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루고 싶다.

### 2 예술인 소감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문화예술교육, 축제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광안리 아트마켓으로 유명한 단체이다. 함께 걸어나가는 동안 할 것도, 해내야 할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진행에 따른 만족도가 높았고 피드백이 좋아서 스스로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부산의 예술 및 관광문화를 위해 행사 및 아트상품 등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많았다.

특히 따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광안리 환경 미화를 위해 새벽부터 모여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지역아동 및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사를 옆에서 지켜볼 때면 고생스러워 보이면서도 감동이 있었다.

부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굿모닝예술인>처럼 부산의 다양한 문화거점들과 함께 협업하여 부산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모퉁이극장

시민 관객들이 단순한 영화 소비자를 넘어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관객문화지원단체이다.

<관객문화교실>, <꾸러기 관객문화교실>, <중구청 평생교육강좌 영화인문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인 시민 관객문화활동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자치프로그램 <애프터시네마클럽>, 문화다양성 영화제 <시네엔두루>, 청소년영화제 <상상영화제>, 실험영화제 <엑시코너스>, 국내 최초 <관객영화제> 개최 등 시민 관객층에 특화된 시민중심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첫 부대프로그램인 커뮤니티 BIFF를 운영했다. 커뮤니티 중심의 시민주도 영화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와 사귀, 학습을 응원하고 시민들이 영화문화를 일상적으로 즐기며 능동적인 문화 주체로 영화계와 시민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김효영

부산 팔도시장 인근에 위치한 공간 힘에서 전시기획을 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작가, 기획자와 함께 협업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홍보 마케팅

모퉁이극장 관객문화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 개발

- 모퉁이극장 시민관객문화활동 프로그램 전시기획, 공간연출을 통한 대외 홍보콘텐츠 제작
- 관객문화 아카이빙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퉁이극장 소개 리플렛 제작
- 모퉁이극장 메인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물 제작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모퉁이극장은 원도심, 중앙동 공간에 다양한 기억과 역사들을 일상 속에서 복원할 수 있는 <40계단 문화모이전-기억 조각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원도심, 중앙동과 얽힌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고자 했다. 원도심, 중앙동 장소에 얽힌 기억과 사연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일상소품 등의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 전단지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2 에피소드 (2)

9월 20일 40계단 거리, 9월 29일 광복동패션거리에서 <40계단 문화모이전-기억 조각 수집> 전시를 개최했다. 그간 중앙동 주민, 상인, 작가 분들이 원도심, 중앙동 장소에 관련하여 모아주신 물품, 사진,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해 시각자료로 만들었고, 이를 전시로 만들었다. 자신의 일상물품들과 구슬내용이 마치 박물관의 소장품처럼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고 뿌듯해하시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에피소드 (3)

6월부터 11월 까지 모퉁이극장에서 문화가있는날 행사로 기획한 <40계단시민극장>의 공간 연출을 맡아 진행했다. 지역의 시민문화를 알리고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모이단과 협업하여 매달 정해져있는 테마에 맞는 포토존을 제작하고 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사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메인 포스터를 활용하여 타임테이블, 현수막 등 홍보물들을 제작하였다.



### 4 에피소드 (4)

모퉁이극장과 협업한 <40계단시민극장>과 <40계단 문화모이전-기억 조각 수집> 활동은 모퉁이극장 관계자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를 모으고 알리는 활동을 하는 <문화모이단> 1,2기 활동가들과 많은 부분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예술인이 독단적으로 실행하기보다, 시민 문화 행사의 운영, 홍보, 기록 활동을 하는 문화모이단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모퉁이극장은 오랫동안 시민친화적인 방향에서 관객문화응원을 펼쳐왔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는 창구가 부족한 편이었다. 상시적으로 관객문화를 소개하고 모퉁이극장을 알리는 홍보콘텐츠가 필요했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예술가와의 협업이나 예술가의 도움을 얻기가 어려웠다.

예술인 파견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술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예술가와 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퉁이극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다. 재단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 특히 매달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술인과의 소통과 협업의 정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술인과 조금 더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시너지를 내며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

### 2 예술인 소감

파견예술인 사업은 예술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남는 생각들이 있다. 늘 하던 방식대로 반복하면 제자리에 멈춰있게 된다는 것.

이번 사업으로 모퉁이극장과 다양한 활동들을 협업하면서 기존의 활동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작업들, 그리고 기존의 활동에서 만날 수 없었던 장르의 예술인들과 협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적 역량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장르는 다르지만 대안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퉁이극장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미디토리협동조합

미디토리는 지역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디자인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시청자 참여 방송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소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부산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ON@미디토리’를 자체적으로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김혜영

음악과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프로 N잡러.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작사가 겸 싱어송라이터(슬로우스테디) 겸 그래픽디자이너 겸 기획자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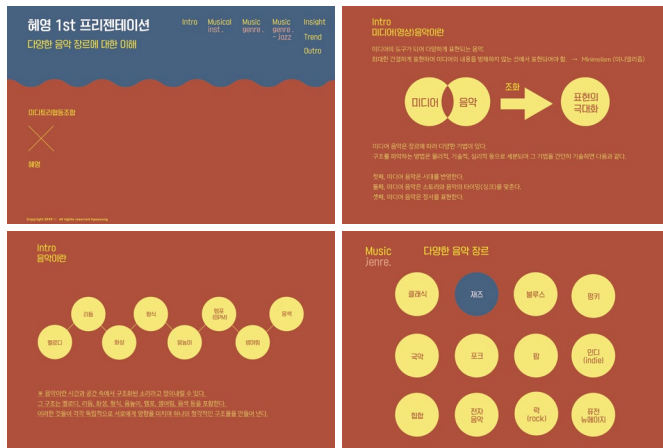
#### 교육훈련(직원역량강화), 사회공헌활동, 홍보마케팅

- ① 교육훈련(직원역량강화): 음악교육
- ② 사회공헌활동: 채널 홍보마케팅
  - 시청자참여방송 “부산탐구생활” 타이틀 음악 제작
  - “부산탐구생활” SNS 채널 디자인 리뉴얼: 아트 및 배너, 로고 디자인
  -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아트 디렉팅
- ③ 홍보
  - 회사소개 브로슈어 디자인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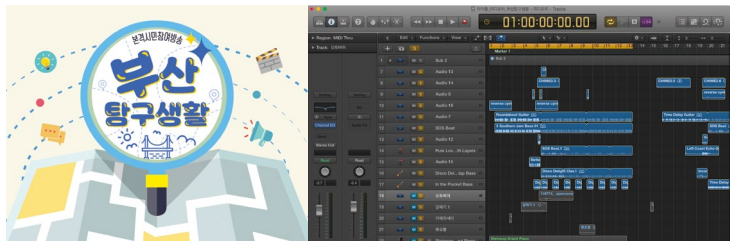
### 1 영상음악이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예술인이 생각하는 영상음악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악기 종류, 음악적 장르, 인사이트 등 간략하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미디토리의 작업 영상에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덧입혀보며 상상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보았고 평소 생각했던 영상음악에서 틀을 벗어나 보는 시간을 가졌다.



### 2 부산탐구생활 : 타이틀 음악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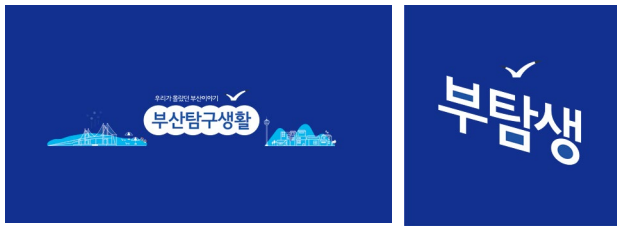
부탐생의 이전 타이틀 음악은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타이틀 영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영상 따로 음악 따로 각각 걸도는 느낌이라 늘 아쉬웠다고 한다. 타이틀 영상의 느낌을 보다 극대화해줄 수 있는 음악의 필요성을 느꼈고 작업을 부탁했다. 여러 가지 음악 소스를 찾아보며 부탐생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을 제작해보았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었고 예술인에게도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부산탐구생활 : SNS 채널 디자인 리뉴얼

부산탐구생활의 유튜브 채널 디자인 리뉴얼 작업. 기존 디자인보다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색감이 강한 컬러를 선택했고 부산의 명소를 일러스트화 하여 채널아트에 재미를 더했다. 그와 더불어 영상 썸네일 제작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과 상대적 크기를 활용한 디자인적 대비 효과, 컬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4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 디자인 작업

매년 미디토리가 주최하는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의 메인 디자인 작업을 맡았다. 진행한 작업은 메인 포스터 디자인과 그 외 배리어이션 작업물 (홍보배너, 포토월, 현수막 등) 제작이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협력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 5 브로슈어 제작 및 로고 리브랜딩

미디토리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편집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와야 했던 프로젝트라 부담감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미디토리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웃으며 재미있게 작업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미디토리에서 따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그라데이션을 기법을 활용한 로고 리뉴얼 작업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예술인과의 협업은 미디토리가 평소 업무에 치우쳐 잊기 쉬운 예술성과 창의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올해는 재즈 피아니스트 겸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김혜영 님과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혜영님은 음악 분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가능한 능력자여서 다방면에서 폭넓게 콜라보 작업을 시도했다. 기존에 우리 기업이 만든 영상과 재즈라는 음악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이 어떻게 상상력을 자극하여 영상작업에 리듬감을 더할 수 있는지 자극을 주는 수업은 모든 구성원에게 음악적 예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SNS 채널 디자인 리뉴얼 작업과 타이틀 송을 제작할 때도 혜영님이 먼저 우리를 잘 알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서, 덩달아 우리 작업도 풍족한 결과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자잘한 피드백도 다 수용하고, 눈높이를에 맞게 진행하신 작업들이 예술인과 협업하는 작업 자체를 즐기게 해주고, 서로에게 많은 감응을 준 것 같다. 미디토리는 해마다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부산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미디토리’를 개최한다. ‘관심-관계-실천’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나온 결과물들이 주제의식을 잘 살리고,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는 컬러와 주제의식을 담은 디자인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컨퍼런스 행사에도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재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는 굿모닝 예술인 작업 범위가 아니었지만 이 기회에 알게된 재즈연주자인 혜영님을 공연을 초대할 수 있어서 한정된 작업을 넘어서 지역 예술인과의 콜라보 작업으로 이어졌다.

디자인과 음악적인 역량을 고루 갖춘 혜영님을 만날 수 있어서 입체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우리 모두 눈과 귀와 행복한 작업이었다.

### 2 예술인 소감

굿모닝 예술인에서 만난 미디토리와의 협업을 통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나 작업을 시도해보면서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영역을 더욱 더 확장시킬 수 있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미디토리와의 협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 월 단위로 협업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일정을 소화하면서 협업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이 또한 성장하기 위한 짧은 통증을 불과했고 너무나도 따뜻한 미디토리 식구들의 격려와 배려 덕분에 모든 협업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미디토리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과 경험이었다. 감사하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부산박물관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종합역사박물관으로, 현재 약 45,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시립 박물관이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이미주

그림을 그리고, 흙으로 도자기도 만들고 최근에는 나무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에서 드로잉을 하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홍보마케팅

지역출신예술가(서양화가)인 이미주 작가와 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안을 개발하여 교구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하였다.

#### 사회공헌활동

부산박물관과 지역출신예술가가 협업하여, 박물관의 대표유물을 선정, 디자인하여 제작한 뒤 시민들이 직접 유물로 만든 디자인 작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12월 말 예정)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유물 활용 디자인 (1)

부산박물관의 대표 유물 선정 회의.



### 2 유물 활용 디자인 (2)

대표 유물중 선정된 향교세트를  
한지 꼴라주의 원화 작업으로 제작하였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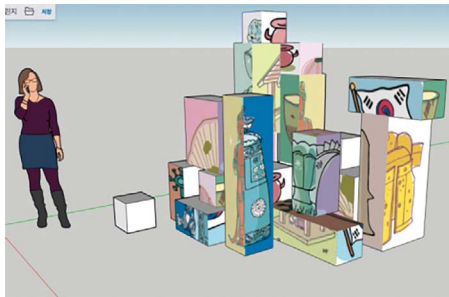
### 3 유물 활용 디자인 (3)

대표 유물로 선정된 <나한좌상> 이미지를 교육행사 홍보물에 이용.



### 4 유물 활용 디자인 (4)

선정되어 재해석된 대표 유물을 적용시킨  
관객 참여형 설치 작업의 시뮬레이션 예상도.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부산박물관은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으로 박물관의 대표유물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박물관이 지역출신 예술가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결과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 향후 타 기관에도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 간의 협업 기간 동안 기관과 예술가가 행정적으로 얽매지 않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2 예술인 소감

부산박물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박물관의 유물들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그 유물들을 가지고 제 방식대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그리고 제작된 결과물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뿌아공(부산아트공방)

뿌아공은 “Creative Culture, the Arts Platform”라는 슬로건 아래 독창성과 지역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예술 교육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 상품(굿즈)을 출시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보다 활발한 창작활동 발판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대중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성’을 기반으로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영역으로는 첫째 예술(미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둘째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셋째 아트상품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뿌아공은 단순한 공방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가와 함께 공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방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지역 문화가 있는 삶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작은 원동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이민걸

부산을 거점으로 조각 및 설치작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다.

최근에는 나의 작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기획 및 사회공헌활동

뿌아공은 이민걸 작가와 협업하여 공방의 아트토이 수제인형을 기반하고 부산의 ‘동래야유’와 ‘수영야유’에 나오는 ‘탈’의 내용을 접목하여 아트토이를 한국의 전통 탈 인형 버전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뚝이》, 《각시》 캐릭터 아트상품을 생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트상품(수제가면인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사하예술제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료(200명)로 진행하였으며, 사하마을 체험에서 활용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가 담겨 있는 캐릭터(수제가면인형)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알리는데 기여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협업 기업인 부산아트공방(뿌아공)을 처음 방문하여 기업에서 기존에 해왔던 아트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술인과 함께 진행할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에피소드 (2)

기업과 예술인이 협업하여 진행할 <전통 탈인형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존에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토틀이를 변형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전통 탈을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탈인형을 제작하였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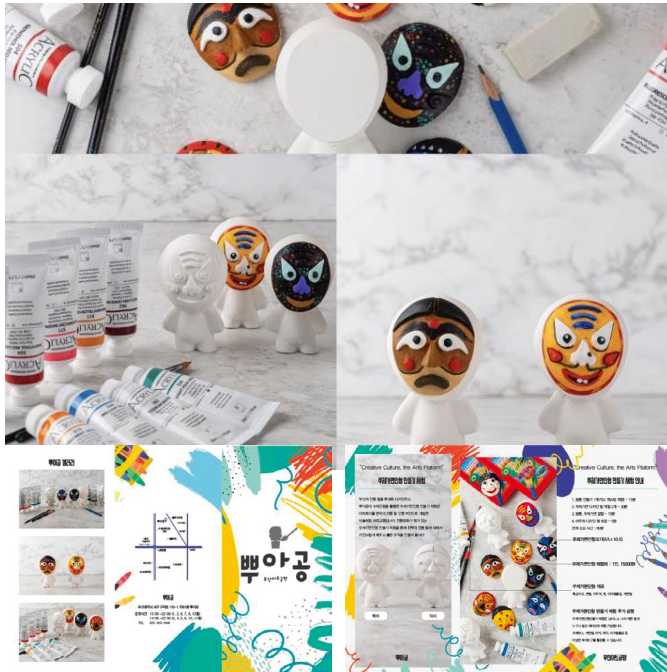
### 3 에피소드 (3)

<전통 탈인형 만들기> 프로젝트를 을숙도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진행한 사하예술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함께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하예술제 이틀 동안 2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 4 에피소드 (4)

<전통 탈인형 만들기> 프로젝트로 나온 최종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제작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통 탈인형을 기부하여 함께 활용될 예정이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이민걸 작가와 함께 하나의 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은 공방을 운영한 6년 동안의 경험 중 최고였다. 예술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통해 평소 시도하고 싶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결과물로 만들어 냈다. 때문에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은 지역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처음 사업의 계획과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아트상품개발을 시작으로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기부까지 모든 것들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 특히나 사업계획에서 제시했던 단순한 공방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가와 공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방으로의 시도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편 이번 굿모닝 예술인 사업을 통해 예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술의 중요성 또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2 예술인 소감

2019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인 굿모닝 예술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경험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 특히 대부분의 작가들은 본인의 작업세계관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부산아트공방(뿌아공)기업과 예술인이 협업하여 아트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의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다양한 피드백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본인의 작품 활동으로만 대중들과 소통하기 보다는 기업과 협업하여 창작 활동을 한다면 대중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함에 있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스탬프 하우스

스탬프 하우스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아트스탬프 제조 : 스탬프 아트용 스탬프 디자인 및 제작
- 스탬프아트 용품 수입 판매 : 해외의 스탬프 아트 관련 용품 수입판매
- 스탬프 주문제작 : 다양한 용도의 스탬프 주문제작

한국에서 스탬프 아트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던 2002년부터 아트스탬프 제작에 전념해 왔습니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해왔고, 스탬프를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매체로 인식했기에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스탬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로 다양한 제품과 예술적 감정으로 가득한 아트 스탬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심성아

2004년부터 수집한 포장지, 종이가방, 껌종이, 편지봉투 등 이미 쓰임을 다한 종이들을 모아서 잘라 붙이는 콜라주 작업을 하고 있다. 각각 고유한 쓰임과 출처, 재질감과 색상을 가진 종이 조각들과 그 조각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풍경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작품 제작, 강좌

아티스트의 작가적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기획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신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작품 제작을 목표로 합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에피소드 (3)

엄지 손톱만한 스탬프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 많은 사전조사와 이미지 수집, 스케치와 그래픽 툴을 이용한 수정이 필요했다. 잘 그린 그림, 보기 좋은 그림은 각자 취향을 따르지만 ‘도장’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그림이 수백, 수천 번 다시 찍히게 될 예정이라는 뜻이며, 다양한 사람에게 보편적인 눈에 만족스러운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 4 에피소드 (4)

약 6개월의 시간을 들여 다섯 세트의 스탬프가 정식 상품으로 제작 되었으며, 겨울 및 크리스마스 테마의 스탬프 세트가 출시 예정에 있다. ‘모자이크 스탬프’ 시리즈는 단순한 몇 개의 그림을 색상과 방향, 조합을 변경하며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스탬프이다. 출시 후 본인이 참가한 아트페어에서도 직접 판매를 해보았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기에 이후 제작되는 스탬프들에도 기대를 걸어본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작가님과 소통하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에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충분히 만족한다.

작가와 기업의 협업이기에 소통이 중요하리라 생각했는데,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본격적인 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작가님의 참신한 발상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작가님의 진심이 담긴 뛰어난 작업 결과물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더 수준 높은 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시간이 끝나는 느낌이라 이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2 예술인 소감

예술품의 가치는 그 고유함과 한정성에 있다고 생각해왔고, 역사적, 동시대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술관에 소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의 그림이 한 사람에게 소장되는 것이 예술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독창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평소와 반대로 누구나 다 좋아할만한 스타일로 그림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쓰임새가 있는 그림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몇 년 간 노력해오고 있는 아트상품 제작 및 체험키트 개발에 꼭 필요한 감각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잉크를 묻혀 찍는다’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과 좋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열렬히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개인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 또한 많이 얻을 수 있었기에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지점에서 있다.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주)스페이스 움

동래 명륜동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만나고, 그 시민들이 문화 애호가와 예술소비자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100평 규모의 반은 카페, 반은 갤러리로 연주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교감하는 작은 음악회를 매주 한 번씩 기획해 지금까지 470여 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진 작가전 및 설치전시 등 120여 회의 전시와 20여 회의 크고 작은 국제교류음악회를 기획함에 따라 얻어진 지역예술가의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기관 및 기업체, 기타 단체로부터의 공연-전시 기획 대행을 하고 있다.

2  
참여 예술인 소개

김범수

Painting작가이며, 얼굴을 주소재로 그리며 간혹 오브제를 이용한 작업도 하고 있다. 얼굴에서 미묘한 차이들로 강조되는 눈과 입, 턱을 괴거나 팔짱을 낀 포즈. 빼죽 나온 코털과 귀털, 다양한 표정들을 그리고 있다. 얼굴에 스며든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과 욕망들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이라는 작품 제목과 같은 아이러니한 감정들을 압축과 생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밖의 모빌 작품이나 리사이클링 작업들도 흥미롭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 소품에도 관심이 많다.

3  
협업 유형 및 내용

전시기획 및 제품기획

아트 소품 개발 및 굿즈 제작을 위해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이슈 인터뷰> 촬영

현대HCN부산방송 <이슈 인터뷰> 촬영 섭외로 김범수 작가와 전시를 알리다.



### 2 (주)스페이스 음 전시 큐레이션



한송희 초대전 기획  
'나만 모르는 도시'  
2019.07.02 - 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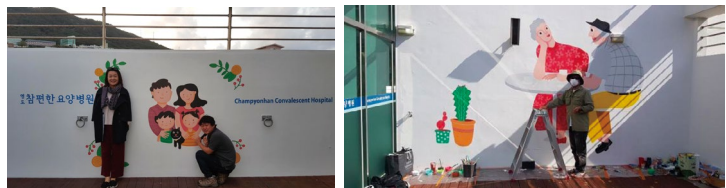
최민정 개인전 전시 큐레이션 'Life of wave'  
2019.07.22 - 08.10

김범수 초대전 '언제나 당신 곁에'  
2019.10.17 - 11.09



### 3 벽화 작업

(주)스페이스 음에서 대항한 영도참편한요양병원의 휴게공간에 제작된 벽화.  
인생의 황혼기에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벽화를 제작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4 (주)스페이스움 기획 보고전

2015년 일본 레지던시 중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작품에 사용할 쓰레기를 수집하여 설치작업을 전시하게 되었다. 그때 작품을 재구성하여 space um 기획 보고전을 디스플레이하는 모습.



### 5 굿즈 제작

쿠션, 노트, 맨투맨 티셔츠, 에코백, 컵, 앞치마 등 여러 작품 이미지로 시제품 제작.

작품명 '턱을 괴고 있는여자' '이상해 오지마' '언제나 당신곁에'

'자! 웃어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이번 <굿모닝 예술인>을 통하여(주)스페이스 옴에서는 우리 지역의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고 조명할 뿐 아니라, 아트 상품과 굿즈를 제작하기 위하여 김범수 작가와 매칭하게 되었다.

3번의 참신한 전시 기획과 독특한 디스플레이로 많은 관람객과 지역의 작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대행으로 진행한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옥상 휴게공간의 벽화 작업도 흥미로웠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작가의 초창기 작품부터 현재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진공관 앰프와 빈티지 오디오, LP판들을 같이 디스플레이 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볼 수 있게 하는 등 참여형 기획이 돋보였다.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의 아트상품과 굿즈를 제작해보았으며 좋은 피드백과 판매까지 이어져 고무적이었다.

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준 작가님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작가와 함께 여러 이슈를 두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 즐거웠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 2 예술인 소감

기대와 우려로 <굿모닝 예술인> 사업에 참여하여 전시기획과 굿즈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송희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최민정 작가, 백승현 작가 등의 기획전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옴의 적극적인 지원과 김은숙 대표님의 배려로 기획전시는 작가와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조금씩 진행된 굿즈 제작과정은 시장조사, 샘플제작, 예산비용, 소비계층과 제품 가격 형성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산, 파우치, 에코백, 의류 등의 굿즈를 제작하게 되었다. 물론 전시와 굿즈 제작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솔루션을 찾아가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처음엔 다소 생소한 영역의 참여와 개인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작업과 다른 생산적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서로 간의 활동을 공유하며 전시와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인 작업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작은 물결이 만드는 큰 파도’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는 2017년에 설립된 지역의 독립·예술영화 배급사이다. 독립·예술영화 배급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산업을 지역으로 분산 시켜 자생적 영화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홍석진

벤쿠버 에밀리카 예술대학에서 혼합 미디어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부산에서 활동 중이다. 홍석진은 비주얼아트라는 큰 틀 속에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프로젝션 맵핑,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듯 스며있는 테크놀로지를 명시적으로 노출시켜 디지털 랜드스케이프를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아날로그적 의미를 성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홍보마케팅(영화 홍보/프로모션 협업)

- ① SHOWCASE the FILM <밤의 문이 열린다> (08/10)  
Audio Visual Performance <룸>  
Video Art ‘밤의 문이 열린다’
- ② 영화 <기억할 만한 지나침> 예고편 제작
- ③ 영상 교육: 어도비 프리미어 tool 교육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배급 영화 영상 작업

씨네소파에서 배급하는 <밤의 문이 열린다>를 재해석해서 영상작업을 했다. 또한 <밤의 문이 열린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투원룸>이란 작품을 사용해서 구조물에 프로젝션 맵핑 작업을 했다. 구현된 프로젝션 맵핑 영상으로 디제이와 같이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2 <밤의 문이 열린다> 쇼케이스

<기억의 문이 열린다> 쇼케이스 전날 및 당일 날 구조물 셋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지만 같이 작업하는 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작업하는 모습에 저도 동화되어 즐겁게 쇼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영화 홍보 협업

배급하는 영화들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많을 것을 배운 것은 물론 영화 배급과정을 옆에서 지켜 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다.



### 4 영화 예고편 제작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한다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다. 잠정 관객들과 처음으로 관계하는 영상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했다. 또한 본 영화를 충실하게 대변해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올해 씨네소파는 지역에서 관객을 발굴하고 영화와 관객을 잇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홍석진 영상 감독님과의 협업 과정을 통해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었다. 우리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실험과 활동의 시너지를 얻었다. 더불어 협업 과정을 통해 서로 가진 네트워크들이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 감사드린다.

### 2 예술인 소감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씨네소파와 함께 작업하면서 독립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독립영화의 진지함, 독특함, 유쾌함을 느끼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를 둘러싼 하나의 생태계를 경험한 듯한 느낌이었다. 감독과 제작자, 배우, 배급사 및 관객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상업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을 느꼈다. 씨네소파분들이 나를 예술인으로서 너무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게 일을 했다. 영화를 재해석해서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프로세스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점도 많았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열린문화공동체 딱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이며, 현실성 있는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노동인구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느리고 단순한 노동 집약적 협업화가 가능한 제품개발과 노동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작업을 나누는 느린 땅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송기철

부산에서 영상, 설치, 사진, 일러스트 등 매체를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기획

열린문화공동체 딱은 노인 및 지체 장애인들의 교구 개발을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크라우드 펀딩의 기획 및 리워드 상품 디자인을 송기철 작가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삶터에서 항상 같이 존재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길고양이를 컨셉으로 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열린문화공동체 딱에서 운영중인 공방에서 생산하는 제품군에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남긴 협업이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열린문화공동체 떡의 공방에서 대표님과 회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체 장애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셨다.



### 2 에피소드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꿈터 원장님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구에 대해 이야기 듣는 중.  
생각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결국 현실에서의 그 효과는 너무 너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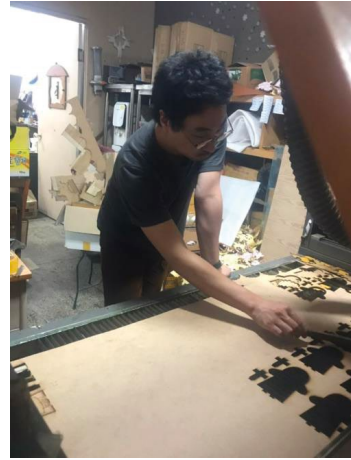
부산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김슬비, 유은영, 김시원, 권시연

열린문화공동체 떡 X 송기철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디자인 작업 (1)

리워드 제품 개발뿐 아니라 앞으로 열린문화공동체 딱에서 계속 상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인 열린문화공동체 딱의 수입원이 되는 곳이 공방이고, 공방의 레이저 조각기를 이용한 제품을 디자인해 보고자 했다.



### 4 디자인 작업 (2)

최종 리워드 상품 디자인.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이라 많이 어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도움 되었으면 한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열린문화공동체 딱이 송기철 작가와의 협업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물은 적지 않은 것들이었다. 협업의 과정에서 생산된 디자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앞으로의 사업에서 많은 부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적지 않은 시간,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주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지기 힘든 부분들을 케어해준 송기철 작가에게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가지게 해준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2 예술인 소감

많은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있겠지만, 열린문화공동체 딱은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곳이 아니었고 자본의 창출을 위한 구조도 아니었다. 어렵게 소수 구성원들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소한 공방에서 적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기업의 특성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을 배워간다. 미약하지만,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영도문화원

천혜의 경관자원이 풍부하며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민의 삶을 문화예술로써 승화시키며, 영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 고장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후세대에게 올바르게 전승하고자 설립되었다. 아울러 흰여울 문화마을과 갯강이예술마을, 봉산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문화도시 예비사업추진 등 혁신적 문화도시재생사업의 플랫폼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굿모닝 예술인> 사업을 통해 흰여울문화마을에 새로운 아침을 열고 새로운 예술적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고정화

금속 공예작가로 활동 중이며, 굿즈 제작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예술을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조직문화, 복리후생, 사회공헌활동

흰여울문화마을 내 주민공유공방(총4개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과 방문객의 상생 방안 모색.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2019년 흰여울문화마을 4곳의 공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흰여울문화 다訪(다방) “널리 많은 이가 찾는” 명으로 리뉴얼하면서,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각 공간에 맞는 월별 테마 작가 선정 전시와 상시오픈에 대한 대책 마련, 주민참여, 관광객들의 발자취 등 흰여울 마을에 대한 기억 남기기로 컬러링 엽서 제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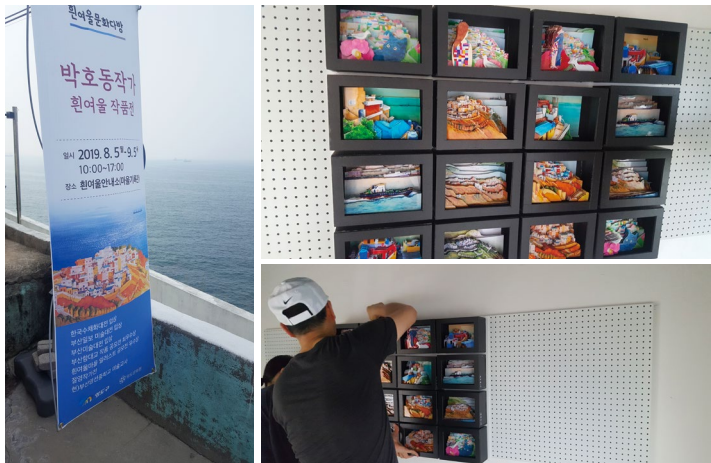
### 2 에피소드 (2)

4개의 공유 공간 중 흰여울오픈마켓으로 참여 작가와 운영 방안모색. — 체험과 전시판매를 주로 하며, 오픈원도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흰여울안내소 전시 (1) : 영도주민작가 영도에 관한 전시

영도 주민작가로 활동하는 박호동 작가와 함께 흰여울문화마을 풍경을 주제로 다양한 구도와 형식을 추구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동시에 사제지간과 함께 만들어 낸 페이퍼 아트를 구사함으로써 또 다른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예술작품을 구사해 보았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흰여울안내소 전시 (2) : 영도주민작가 영도에 관한 전시

영도가 고향인 윤정에 작가는 물질하는 중리 해녀들의 얼굴 가득 주름이 선명하지만 언제나 표정만은 밝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나비가 춤을 추듯 자유로운 인어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했다. 그 표현 기법은 낯설지만, 다시금 바다 마을의 삶을 잘 표현한 작품 전시였다.



### 4 흰여울문화마을지도 컬러링 엽서 제작

흰여울문화마을을 일러스트와 주민들을 캐릭터화한 컬러링엽서를 만들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추억과 기념을 남기고 수익창출로 공유 공간을 운영하게 하는 프로젝트 실시. 엽서를 구매하고 글을 쓴 후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면 일년 후에 랜덤으로 보내주는 느린 우체통 운영 방법도 제시하였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흰여울문화마을을 거쳐간 두명의 ‘굿모닝 예술인’이 그리울 것이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작년에 흰여울문화마을 마을신문 제작 교육을 했던 작가 오성은씨도 올해 두 번 흰여울문화마을을 다시금 찾았다. 올해 함께 한 고정화 작가도 내년에도 다시 찾을 것이다. 꼭 사업이 매개가 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 그림고 필요하다면 다시 찾을 것이다.

이것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소감이며 바람이다.

단순히 ‘흰여울마을 컬러링엽서’라는 상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정화 작가와의 협업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주민공유공방이 어떻게 하면 주민에 의해 지속가능한 공유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찾았던 과정이었다. 사업비가 없어도 공방을 유지시키는 기능과 자산을 주민 작가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만들고, 컨설팅을 통해 예술인이 떠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심시일반 모은 공간 사용료로 고정화 작가의 정성어린 컬러링엽서가 만들어졌고, 수입은 다시 공방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을 거쳐갔던 예술가들을 모으는데 다시 쓰일 것이다.

짧은 시간안에 고정화 작가의 발걸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그간의 활동과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처음 1번으로 영도문화원 앞에 앉은 고정화 작가와의 인연이 또 이어지길 바란다.

### 2 예술인 소감

영도는 낯설지가 않은 동네이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과도 멀지 않으며, 마음의 휴를 찾고자 할 때 언제든지 금방이라도 갈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는 곳이었다. 굽이지는 골목길과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정취가 있고, 운치가 있었다.

요즘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일이 종종 있곤 했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마을 주민들은 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마을이 알려지면서 점점 카페가 많아지고, 조용한 마을에서 케어에 끄는 소리와 사진 찍는 셔터소리에 이곳 흰여울 마을의 본연의 모습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듯 했다.

눈부신 바다풍경과 바다내음을 느껴 볼 수 있는 장소로 찾게 하고 싶었다. 이곳은 영도작가들의 특색과 문화를 알리고 “흰여울문화마을多訪(다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형태로 공유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으면 했다.

영화 변호인 촬영장소인 흰여울 안내소는 바다프레임 사진 찍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포즈와 미소가 가득한 사진을 남기게 하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이곳 안내소 한 칸에 마을 곳곳의 건축물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를 지도 삼아 엽서 제작을 하여 추억을 다시금 전해 줄 수 있는 엽서 보내기를 함으로 마을의 아름다움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건네주고, 없어질지 모를 이 공간에 그리움을 남겨 보고자 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예술은 공유다

‘예술로 살피는 도시’로 누구든지 예술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고,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게 함을 비전으로 한다. 숨 쉬듯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삶을 위해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하고자 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최정은

주로 개체의 움직임을 탐구하여 설치 작업으로 나타내는 작가이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공연무대) 제작 — 아트디렉터

예술은공유다와 최정은 작가는 공연과 접목한 체험컨텐츠, 행사, 연극공연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에 거쳐 작품을 만들어 협업했다.

##### ① 낮선초대(호러 컨텐츠): 공간 연출 및 컨텐츠 제작 구상

— 전체 스토리 및 컨셉을 구상하고 호러컨텐츠에 맞는 시각적 예술 효과 구현에 대한 회의를 실제 공간과 작업실을 오가며 진행하였다. 2개의 공간을 연결한 효과적인 장치들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기대할 수 있었다. 예정된 컨텐츠를 더 보완하기 위해 무기연장했지만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발전하고 재점검 후에 지속적인 커넥션을 가지며 파트너로서 함께할 예정이다.

##### ② 뮤지컬 <청춘쌍곡선> 준비 & 부산문화재단 10주년 기념 2030 비전선포식 아이디어 및 컨셉 구상

— 공연 무대 컨셉 도출을 위해 무대제작소를 오가며 아이디어 정리와 샘플 작업으로 다양한 컨셉을 도출했다. 그 결과 뮤지컬 <청춘쌍곡선>은 BOF 공연에 선정되어 10월 ‘메이드인부산’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의 1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이례적인 선포식 진행에 대한 컨셉 구상 및 아이디어를 통해 진정성 있는 컨셉을 도출하고 구체화했다.

##### ③ 소막마실 가는 날 & 소아과 야간상담: 키네틱 아트를 접목한 소품 컨셉 구상 및 무대 제작

— <소막마실 가는 날>의 소 오토마타는 키네틱 기술을 접목한 소 모형의 이례적인 공연 소품이 탄생했다. 아트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최정은 작가가 컨셉 등을 회의에서 제안해줬다.  
— <소아과 야간상담>에서는 작가의 작품인 ‘비생물적 유기체’를 옮겨 무대 제작을 하였는데 무대 제작소와 함께 작업하여 연극 무대를 디자인하였다. 남녀의 시선 차이를 다른 연극에 예술을 접목한 방식이었는데 최정은 작가의 세계관을 작품에 녹일 수 있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에피소드 (1)

첫 회의를 가졌다. 기존에 존재하는 틀을 깬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연극 관계자 뿐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와 미술작가, 마술사님까지 모두 모였다.



### 2 에피소드 (2)

회의의 연속이다. 늘 새로움을 찾는 <예술은 공유다>는 매번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특히 이 날은 중요한 행사의 컨셉을 정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였다. 미디어 감독님의 수고가 많았다.



부산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주)예술인 공유다 X 최정연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에피소드 (3)

인간의 이기심과 처연함을 표현했던 <비생물적 유기체>를 연극무대로 옮겼다. 늘 작가 혼자 해내던 일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구상하면서 설치를 진행하였다.



### 4 에피소드 (4)

마침내 공연 시작. 여성과 남성의 시각 차이와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연극 <소아과 야간상담>은 본 작업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세 배우의 연기가 녹아들어 더욱 멋진 공간으로 되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최정은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으며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었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사과의 전환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어서 컨셉과 아트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최정은 작가님과 인연이 될 수 있게 <굿모닝 예술인> 사업을 지원해준 부산문화재단과 전소영 코디네이터님께 감사하다.

또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최정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예술은공유다는 최정은 작가와 이번의 만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협업을 약속하였다.

### 2 예술인 소감

보통 작업 구상을 하게 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내 생각과 확신이 항상 우선이었다. 타인과의 협업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술은 공유다>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를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때론 양보하면서 하나의 골로 나아가는 그들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로소 나 역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모든 기회를 가져다준 <예술은 공유다>와 늘 수고가 많으셨던 전소영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온새미학교

2010년에 설립되어 현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형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써 성장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계인이 되자’를 삶의 목표로 삼아  
 소통·공감·용기의 함양, 경험을 지식과 융합해 풀어내는 창의성, 끈기와 야생성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박은주

넓을 광(廣)에 ‘큰 대(大)’. 이름처럼 살고 싶은 따따라.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사회공헌활동

“참교육 공동체의 구성, 열린 활동을 통한 창의 인재 육성”

- 온새미 문화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안학교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 예술 치유를 통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와 자녀 등 소통 프로그램 운영.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1

### ep.1. 나의 삶 상징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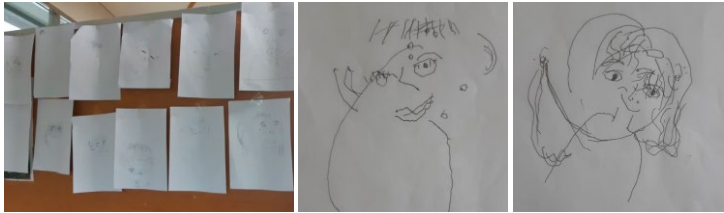
자신의 삶을 상징물로 표현하라고 하자 고래를 만든 친구가 있었다.  
“말 못하는 짐승인 고래도 꿈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인 제가 꿈이 없다는 게 부끄러워요.  
고래를 닮고 싶어요.”



2

### ep.2 마음의 눈 : 눈을 감고 나를 보다

눈을 감고 그린 내 얼굴들을 감상하고 내 얼굴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해괴망측(?)한 그림들은 모두 다 주인들 손에 들어갔다. 이유가 무엇일까? 중3 남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들 자기가 못생긴건 아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찾아 가죠 하하.”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ep.3 워드미(with me) & 미드미(믿음이)

키워드인 ‘믿음’을 제시하고 관념적인 언어에서 구체적 자기표현과 라포 형성,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목표로 실행하였다.

일명 ‘통(나무)채로 믿어라’라는 놀이를 진행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친구를 받아주지 않는 일이 있었다. 내 뒤에 친구가 자신을 받아 줄 거라고 굳게 믿고 넘어졌건만 뒤에 친구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다치진 않았지만 놀란 마음에 A양은 울음보가 터졌고 모두들 둘 사이에 믿음뿐만 아니라 우정까지 깨진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상대방 친구였던 B양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교실이 아주 울음바다였다. 잠시 후, 눈물범벅이 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A양과 B양..

말없이 빙그레 웃더라. 이렇게 믿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4

### ep.4

#### 믿음을 주제로 한 감각 글쓰기와 극 만들기

오감을 활용한 글쓰기 작품 김나연 <박조기>를 각 모듈별로 각색, 연출하여 <문을 넘어간 조기>, <연어기>, <박조기의 新서유기> 총 3편의 창작극으로 탄생시켰다.



#### 김나연<박조기>

조기의 이름은 박조기이다. 박조기는 자신의 몸보다 열배 큰 폭신폭신향 빵에 올라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마다 온 몸이 푹푹 빠졌다. 빠진 몸을 힘껏 끌어올리니 노란색 크림이 묻었고 지느러미엔 분홍색 크림이 묻었다. 그때 바스락 소리를 내며 고양이가 나타났다. 고양이는 박조기를 보며 말했다. “날 밟고 그 크림을 먹어봐. 노란색 크림을 먹으면 손이 생기고, 분홍색 크림을 먹으면 다리가 생길 거야.”

박조기는 고양이를 밟고 분홍색 크림을 먹었다. 딸기맛이 났다. 다리가 ‘뿡’ 하고 생겼다.

“참고로 노란색 크림은 시럽맛이야. 노란색도 먹어봐. 자! 그럼 나랑 저기로 가자.”

고양이는 창문 너머를 가리켰다. 손과 다리가 생겨난 박조기는 고양이와 함께 문을 향해 걸었다. 어디선가 여름 냄새가 났다. 문 밖에는 여름이 와 있었다.

이 세상 이 여름엔 오직 둘만이 있을 뿐이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5

ep.5

### 감정 그리고 행복을 방해하는 것

희.노.애.락.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 중에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도 있다. 나의 감정은 무슨 색깔일까?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들의 작업은 시작되었다.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다양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에는 놓지 못하는 생각, 기대, 시간, 돈, 사람, 걱정, 화남, 관계, 권력(힘), 갈등, 잔소리, 동생, 선택, 소심한 성격 등등. 그리고 이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했고, 그 중 형태를 알 수 없는 '이름 없음'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다.



“저도 제가 그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 행복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6

ep.6

### '끈'끈한 마음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 끈으로 얽히고 설켜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린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동생은 20살을, 이모는 사랑을, 고모는 밤을, 선생님은 모두의 행복을,  
할아버지는 만화책을, 엄마는 아빠를, 언니는 방학을, 친구는 여행을, 할머니는 내일을,  
나는 통일을...」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사물 즉 오브제에 대한 사고를 열고, 끈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마음 속 기다림이 무엇인지 나아가 나를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온새미 학교에서 <굿모닝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예술인 선생님께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학교가 원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들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셨다. 공감, 소통, 용기의 내용을 놀이의 소재로, 학생들과 놀이를 만들면서, 놀이를 이용해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기발하고 독특하며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굿모닝 예술인 사업을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예술인 소감

먼저, 새로운 무대에서 예술 강사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주신 담당 기관과 <굿모닝 예술인> 사업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온새미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참여하는 학생들의 미래가치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연극 교육으로써 디자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울러 예술 강사로서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이중섭문화마을

- 산복도로 동구 안의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 자발적인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화가 이중섭의 역사적 배경지식과 상생을 통해 공감을 형성.
- 마을주민 미술교육, 미취학아동 특강 및 전시회를 개최
- 산복도로 내 빈집 활용 도시재생
- 이중섭 역사문화탐방 미술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기관

### 2 참여 예술인 소개

#### 강미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회화나 사진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① 산복도로 마을주민 미술교육, 미취학아동 특강 및 미술전시회 개최.
- ② 빈집 활용 도시재생 및 역사탐방과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참여형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③ 산복도로 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선임아동센터 여름 미술 특강

지역 내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미술특강을 실시하였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흔한 미술학원을 다녀본 학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술을 학습이 아닌 놀이의 개념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다양한 물체를 보고 먹고 만지면서 표현, 오감을 통한 드로잉을 체험하였다.



### 2 아뜰리에 in 범일

11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마을 전시가 열렸다.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 축하해 주셨고 마을 화가로서 참여하신 주민분들께서 직접 작품의 제작 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예술공간의 재탄생

범일동 성북시장 내 상인들의 쉼터 공간이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곳을 발견, 상인회와 협의 하에 마을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벽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 4 마을 전시회 준비

마을 전시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로 일명 ‘문턱 낮은 미술방’을 열었다. 준비 막바지로 갈수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준비를 했던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부산 동구 범일동 산복도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 사회기관들의 도움으로 마을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형성 할 수 있었고 이중섭 문화마을만의 산복도로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체험교육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관광특색지역으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빈집활용, 관광 패키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매출을 늘리고 마을 내 주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은 누구나 공유, 향유 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신감 부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천재 화가 이중섭이 생전 머물렀던 범일동을 알리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마을주민과의 소통, 화합, 상생으로 탄생한 교육프로그램과 마을전시회까지 6개월간의 마을주민과 기관의 협력과 화합을 통한 마무리를 짓고, 나아가서는 산복도로 역사, 문화, 예술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활동과 많은 도움, 협력으로 이루어져 동구 범일동과 천재 화가 이중섭을 마을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2 예술인 소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관찰자로서 때론 조력자로서 그들과 함께했다. 예술이 그들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 속에서 예술이 지닌 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동, 부전동, 양정동, 범천동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안정망 구축과 지역 공동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포동의 경우 재개발과 주민 이주로 인한 지역공동체 상실, 전포카페거리 젠트리피케이션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압축하여 담은 곳으로, 우리복지관은 사라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새로운 주민주체의 커뮤니티를 확장하기 위한 문화복지를 주민조직의 핵심사업으로 지향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남진우

일상과 상상의 조화를 꿈꾸는, 진짜 세상속에서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싶은 예술인. 다양한 영상 미디어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대상들과 함께 진짜 세상 속 이야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많은 실험적인 예술활동도 하고 있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사회공헌활동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큰 지향을 가지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극장 운영, 영화읽기, 영상제작과 마을기록유산 축적, 마을영화제 등 지역 문화공동체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정해진 프로그램에 예술인이 조력하는 협업방식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예술인과 프로젝트를 공동기획하고, 수정해나가는 협업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진행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마을 문화공동체 조직사업 <전포동 마을극장>
- 지역 학교 연계사업 <전포동 영화학교>
- 대학생 마을공론 영상제작단 활동
- 청소년 진로 ‘고민’ 프로그램 <Why Not>
- 할로윈 마을영화축제 <다올시네마>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다큐멘터리 ‘모두의 이야기’

올해 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복지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소리치고 싶는데 도움을 달라는... 어쩌면 영화가 그 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뛰어가 그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천천히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작에 들어간 다큐멘터리가 ‘모두의 이야기’이다. ‘모두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중이다.



### 2 영화읽기

복지관 옆 중학교의 전교생들이 학년별로 3일에 걸쳐 복지관에 단체로 영화관람을 왔다. 상영작은 찰리채플린의 <모던타임즈>. 이름만 들어봤던 전설적 희극인의 연기에 신나게 웃었지만 담긴 이야기는 마냥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어지는 남진우 감독과의 대화. 도시화와 산업화, ‘기계에 밀려나는 사람의 자리’에 대한 찰리채플린의 고민은 알파고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묵직하게 와닿는다. 마을의 아이들은 여기서 영화란 교과서로 세상을 배운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전포동 마을극장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는 <전포동 마을극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다. 8월의 테마는 바로 뮤지컬영화. 1952년도 그루브에 2011년생 아이들이 춤을 춘다.

마을극장 상영작 OST는 마을 초등학교의 최신유행가가 된다. 8월에는 춤추러 극장 온다는 녀석들이 한 무더기다. 대중문화만 있고 지역문화는 사라진다는 문화백화현상의 시대. 우리는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 4 다올시네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마을 할로윈축제가 열렸다. 작년까진 해리포터와 헤르미온느가 수백 명이더니 올해는 할리퀸이 대세다. '귀신의 집'만큼 인기를 끈 것은 픽사의 명작 단편을 엮어 상영하는 '다올시네마'다. 10분도 채 안되는데 우주를 여행한다. 영화가 있어 설렌다. 비로소 축제다.



### 4 다올시네마

why not? ~ 하는게 어때? ~ 해보는게 어때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제안해 시작한 유튜브 영상 촬영. 동네 학생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영상을 촬영한다. 처음에는 물음표를 생각나게 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느낌표로 변했다. 촬영법, 편집법 등 매주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해오는 학생들이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해있을 학생들의 영상을 생각하면 더 설렌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남진우 감독님과 두 번째 협업사업. 직원들은 물론 마을사람들 모두 정겨운 얼굴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마을극장의 극장장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전포동 마을극장은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복지관이 주민의 문화생활 기반인 동시에 새로운 지역 문화공간 창조와 발견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공동체를 조직하는 사업이다.

비영리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조직은 오래된 고민이다. <굿모닝 예술인>은 그런 우리에게 “공동체 어렵지 않아요.”을 가르쳐주었다. 함께 여가를 즐기고, 같은 관심사 속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풍성해지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필름처럼 남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영글을 배워가는 것. 그리하여 다음에도 함께 할 무언가로 가슴이 뛰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임을 깨닫는 일 년이었다.

특히, 올해는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영상을 만드는 동네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복지관의 짐벌과 삼각대 대여는 늘 품절이다. 전포동에 유튜브 스타가 탄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어떤가. 이미 사람의 발길과 웃음으로 ‘영화 같은 일’이 일상 곳곳에 있다.

끝으로 ‘마을문화’를 선물해 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과 우리의 캡틴! 남진우 감독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2 예술인 소감

너무나도 행복하다. 항상 화요일 저녁 ‘마을극장’ 시간이 되면 전날부터 설레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어떨까? 그들은 어떻게 볼까? 상영이 시작되기 전 나는 어떤 이야기로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까?

그들에게 주고자 한 예술적인 감성과 상상력을 오히려 내가 느끼고 고민하며 한주 한주를 보낸다. 함께 영상제작을 해가며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나에게 선물로 주고 가기도 한다.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영화 속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보여준다. 내가 본 그들의 세상은 따뜻하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더 뜨겁게 봐야겠다.

항상 웃어주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과 맹렬히 반겨주시는 마을 주민분들과 마을극장 관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식회사 디자인디

‘디자인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소셜미션으로 청년디자이너들이 함께 일하는 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이다.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재생,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청년 및 예술가와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화된 지역 환경 개선, 안심길 조성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권장,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사회적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박가범

결과물로 맺힌 작품 그 자체보다는 삶의 시간 안에서 태도로 형성된 양식을 미술이라 믿고 살아간다. 작가로서 모든 행위의 침단에는 낮은 통념을 고루로 내모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잘 안되거나 패배할 때가 많다. 물론 끝까지 집중하고 노력하되 끝에선 절망보다는 ‘어쩔 수 없지’ 혹은 ‘아님말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본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사회공헌활동, 제품기획

##### 2019 금사아트페스티벌 (GAF)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인 ‘금사회동동’을 알리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금사회동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CampusD와 예술지구\_P를 잇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시, 체험, 공연, 마켓 등 디자인디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주최/주관 주식회사 디자인디, 박가범 작가

마켓, 드로잉체험 GAF마켓 2019.10.26 Campus D 야외정원

공연 인디\_연락 2019.10.26 예술지구P 금사락

전시 Geumsa now 展 : 2019.10.26 - 2019.11.30, Campus D 1관

Portrait 변재규 개인전 : 2019.10.17 - 2019.10.28, 예술지구P ADP1

프로젝션 맵핑 결과전 : 2019.10.28 까지, 예술지구P ADP2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2019 금사아트페스티벌 기획 (1)

디자인디의 디자인팀장님과 함께 제작한 포스터. 파견 사업이 시작되고 10월 축제 진행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 예술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전에 없었던 아트마켓, 3건의 전시, 3팀의 공연을 결합한 지역 예술 축제를 집행할 수 있었다. 메인포스터는 금사공단 지역의 위성지도이며 공단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모습과 위치를 잘 보여주고 싶어 고민한 결과이다.



### 2 2019 금사아트페스티벌 기획 (2)

캠퍼스D의 야외정원에서 진행된 아트마켓의 전경이다. 마켓에는 지역 예술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 행사였다. 부대 행사로 추상 드로잉 그리기, 캐리커처 에코백 증정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천진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 일상에서 느끼는 특별한 행복이 축제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3

### 2019 금사아트페스티벌 기획 (3)

전시는 캠퍼스D에서 1건('Geumsa Now'전), 예술지구\_p에서 2건(portrait: 구조적 초상-변재규 개인전, 복도 두번째 방-류예준 개인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진은 'Geumsa Now'전의 전시 전경으로 부산대 일대와 석골문화예술촌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출품 작가들은 지역의 생활권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많은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문화생산자'로서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는 비평적인 시선과 대안적 이미지 생산물로 구성된 전시이다. 작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점차 요구되고 있는 '주체적 사유'의 결과를 각각의 작품에서 보여준다.



4

### 2019 금사아트페스티벌 기획 (4)

지역 인디밴드의 공연은 예술지구\_p 금사락에서 이루어졌다. 그 동안 한일 교류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예술지구\_p의 정한별 매니저의 기획공연 브랜드인 '인디\_연락' 타이틀로 카우칩스, 김광일(연체인드), 제이비드 3팀의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 주민, 마켓에 참여한 셀러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디자인디 임직원 등 기존 인디밴드 팬덤을 넘어 다양한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특히, 금사락 공연장의 우수한 음향 및 조명 시설과 디자인디 디자인팀의 '인디\_연락' 공연을 위한 굿즈 제작 등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공연의 감동이 배가되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디자인디 #박가범 #도전 #처음 #감사합니다

디자인디는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사업 <굿모닝 예술인>을 통해 다양한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었다. 신규 브랜드 론칭에서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2019금사아트페스티벌까지 박가범 작가님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아티스트이자 기획자인 작가님의 시각이 결과물만을 만들어 내기에 바빴던 디자인디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느 때와 같던 금사회동동에 2019금사아트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마을에 예술적 자극을 주었듯, 박가범 작가님을 통해 디자인디 역시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다.

참여해주신 박가범 작가님을 비롯 부산문화재단의 담당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예술인 소감

파견 사업에 지원하고 디자인디와 매칭이 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여러 감정이 일었다. 협업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 결국 이 사업을 통해 아티스트와 기업 그리고 기관 모두에게 참된 의미를 살리는 방향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통속적이지 않으면서 모두가 성취를 얻는 일. 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이자, 파견된 예술가에게 특화되어 있으며 그것의 파급효과가 대중과 문화예술계에 선한 영향을 주는 일. 디자인디는 뉴딜 대상이자 금사공단 내 DRB 사회공헌 플랫폼인 캠퍼스D에 입주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나는 개인 작가 활동과 더불어 금정구를 지역적 기반으로 대안 공간 운영,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 기획 및 집행 등 활동가적 행보도 몇 년 째 이어왔다. 그리고 파견 사업 이전, 캠퍼스D와 같은 금사 공단 내 육성화학에서 운영중인 예술 지구\_p의 레지던스 입주작가였다. 캠퍼스D와 예술지구\_p는 기업의 지원아래 매우 수준 높은 전시시설과, 공연시설, 부대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교통이 불편한 입지 조건과 홍보 채널 부족으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비해 관객수나 인지도가 매우 낮게 느껴졌다. 현상에 대한 나열과 이를 조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두 복합문화공간을 연결한 예술 축제의 기획 및 개최였다. 활동가로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디자인디의 임직원과 협력하여 ‘금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디자인디의 자체 브랜드를 출범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역 예술의 현재를 소개하고 지역 아티스트에게는 자신의 성과를 선보이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발적인 콘텐츠 구성으로 더 많은 관객의 유치를 모색하였다. 그 동안 서류 작성부터 유관기관 미팅, 프로젝트 설계 및 진행, 세금 정산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오다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은 나에게 매우 특별했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시너지는 소중한 더 많은 에너지를 성과로 치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파견 사업이 올해의 삶에서 고정적인 소득원으로 작용하였고,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작가적 커리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식회사 핑크로더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문화를 이해하여 자연과 자원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공정여행을 운영하는 여행사로써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양한 기획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회사이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내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하드웨어(공간/경제적 지원)들을 채우며, 자발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여행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이효선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하며 영상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핑크로더와는 <부산스러운 문화재 교실> 프로젝트 진행 과 사진 및 영상 아카이빙을 하였으며, <작가감성 예술여행>에 아카이빙 촬영을 하였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사진 및 영상, 촬영, 아카이빙 <부산스럽게 문화재 교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의 '부산문화유산특강'을 시작으로 '부산스러운 문화재교실', '부산스럽게 박물관 만들기 공모전'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부산의 건축물을 주제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부산스러운 문화재 교실'은 교실에서 부산의 근대사 '근대화의 빛과 그늘', 현대사 '피란수도 부산'로 나뉘어 강의를 진행되고, 현장답사를 나와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직접 보며, 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내가 만드는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산, 통영 지역에서 예술과 여행을 함께 병행하며 가족, 친구 모임을 통해 참여한 고객들이 다양한 예술공간에서 예술 능력을 향상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기록영상 촬영 및 편집

시청에서 진행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의 '부산문화유산특강' 기록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였다.



### 2 '부산스러운 문화재 교실' 참여

근대사 수업을 참관하다 쉬는 시간이 되어 학생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어수룩한 말투로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라고 말을 걸었다. 왜냐는 질문에 그 학생은 본인이 일본인이라고 했다. 당황해서 “역사는 역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대단하네”라고 밖에 말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쉬웠다.



부산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근로에 예술인 고용 연계

주식회사 팜크로더 X 이화전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에피소드 (1)

요즘은 초상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 건 어려운 일이다.  
 몇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초상권문제로 학생들 얼굴은 찍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어쩌다 가끔 학생들이 카메라보고 웃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



### 4 사진 촬영

이민아 시인과 함께한 통영여행으로 통영의 이야기와 통영의 작가들을 알았다.  
 다음에는 아주 천천히 통영을 여행하고 싶어진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이효선 예술가가 참가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사진촬영을 해주었다.  
아이들이나 가족들의 밝은 표정을 이끌어내고 사진 기록으로 남겨주어 감사하다.

### 2 예술인 소감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유년기를 서구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던 혹은 방치된  
문화재를 많이 보고 배웠다. 내가 그랬듯듯이 수업시간에 까부는 학생들을 보며 나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역사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이 프로젝트의 아카이빙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로써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가짐과 태도는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식회사 아트현

지역 청년예술가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예술로 여는 도시재생’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사회목적을 실현, 기업이 중심이 아닌,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문화예술을 기획 및 진행, 아트 굿즈, 거리문화행사, 프로젝트 전시기획 등을 통해 지역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 홍보와 더불어 직간접 경제적 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낮은 진입장벽의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의 소통의 장을 형성 및 새로운 여가생활과 문화예술 소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전혜진

누군가가 쓰고 버려진 옷, 물건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작가이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제품 제작 및 교육

##### — 3D 프로그램 교육

역량강화 및 아트 굿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전문 강사 초청 및 교육 진행

##### — 아트 굿즈 제작

협업 예술가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미지를 통한 아트 굿즈제작 (키링, 케이스, 그림 톱, 노트 등)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기획전시 8,350(최저시급)전 개최

아트현과 전해진 작가가 협업한 첫 번째 활동이다.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8,350전은 미술가의 1시간이 사회 안에서 갖는 의미를 조망하는 전시로서 제목은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에서 착안하였다. 모든 작가의 작품이 작품의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8,350원에 거래되며 수익금은 100% 작가에게 돌아간다.



### 2 아트굿즈 사업 진행을 위한 제품 제작

청년 예술작가들의 지속적인 수입을 돕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아트현의 설립목표 중 하나이다. 아트현은 지속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트굿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작가들의 경제적 활동을 돕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트현과 전해진 작가의 두 번째 협업 활동이다. 전해진 작가 또한 부산지역 청년작가로서 아트현이 가진 목표를 매우 지지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였다. 전해진 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이용한 에코백과 폰케이스, 버려진 옷들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아트 굿즈 제작

금정구가 주최하고 문화나눔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참여하였다. 프리마켓과 함께 무료 체험행사(캐리커처, 사진전사 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에 사용된 에코백 50여 개는 전해진 작가가 직접 제작하였다. 캐리커처, 사진 전사, 드로잉 에코백 만들기 등 모든 체험행사 또한 전해진 작가가 직접 참여, 진행하였다.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에서는 대중, 소비자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에코백은 일반 시중의 에코백과 비슷한 품질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과 20, 30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으며 아트현과 협업하여 진행 중인 굿즈 상품 프로젝트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게 했다.



### 4 3D 프로그램 교육

아트 굿즈 제작단가를 낮추고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아트현은 3D 프린트 기계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3D관련 전문가(신두수 전문가님)를 섭외해 자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트현 직원과 전해진 작가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들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트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3D 프린터와 CNC 커팅기 관련 프로그램 및 기기 조작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고, 이는 전해진 작가뿐만 아니라 함께 강의에 참가한 예술인의 작가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주식회사 아트현은 기존 청년 예술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지역 청년예술 작가들과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팔색조와 같은 작업을 보여주는 전해진 작가와의 협업은 행운이자 좋은 기회였다.

기존 내부 프로젝트인 기획 전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더욱 신선한 전시 기획으로 이는 신생기업으로서 큰 재산이 되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아트 굿즈 제작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고 적극적인 협업과 활동을 해주신 전해진 작가님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아직 진행 중인 아트 굿즈 제작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 2 예술인 소감

8,350전에서 총 6점의 작품을 판매하였다. 한 분은 전시회는 많이 가봤지만 작품을 구매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전시기획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작가인 나 자신도 나의 1시간을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구매자에게 작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예술작품 구매와 감상을 촉진하고 청년 미술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트현의 굿즈사업은 감천문화마을에서 막을 열 계획이다. 내 주변 작가 분들과 내가 속한 드로잉 그룹의 멤버들을 섭외하여 감천과 관련된 재미있는 굿즈들을 만들었다. 판매수익의 50%는 이미지를 제공한 작가에게 지급된다. 부산문화재단과 아트현 덕분에 주변의 작가들에게 좋은 수입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었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

## — 기업·기관 × 예술인 소개

### 1 협업 기업·기관 소개

#### 주식회사 이바구캠프

동구 초량동 구봉산 산자락에 위치한 이바구캠프는 마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이다. 2016년 마을기업 설립 및 게스트하우스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주민의 사랑방 및 마을 거점 공간으로도 역할하고 있다. 마을의 소일거리 창출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참여 예술인 소개

#### 이영아

동일한 집단 속에 밀려난 다양한 개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몸으로써 그들의 언어를 읽으려고 사진, 영상, 텍스트 등으로 작업하여 기록과 대안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 3 협업 유형 및 내용

####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 이바구캠프 내 다양한 공간 및 서비스를 사진으로 담았다.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사용되어 이바구캠프를 알리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일상을 담은 사진집 등 다양한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사진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부터,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써보는 시간으로까지 연결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일상을 담은 소소한 사진들로 마을 사진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1 이바구캠프 사진 촬영

이바구캠프 홍보에 필요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캠프 내 숙박시설, 멀티시설, 행사 등 촬영.



### 2 지역주민을 위한 사진 수업 (1)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진 수업.  
격주마다 모여 그 간 찍어온 핸드폰 사진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 조작부터 알려드렸다.



## 협업 과정 또는 에피소드별 스토리북

### 3 지역주민을 위한 사진 수업 (2)

사진 찍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 사진으로 다 찍지 못했지만 그 동안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를 글로 담도록 사진과 글쓰기 kit를 만들어 실험해보았다. 처음에는 기록이 남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애초에 사진 찍기를 시작한 이유가 글보다는 말이 편한, 이성보다는 직관이 편한 분들이라 생각해서이다. 그러기엔 글쓰기보다 사진 찍기가 참여자들이 말하기 편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사진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주길 바랐지만 참여자분들께서 되려 부담감을 느껴하셨다.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참여하려는 의지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호응도 높은 수업 혹은 모임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 4 지역주민을 위한 사진 수업 (3)

그간 해왔던 수업에서 각자가 찍어온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 중, 작은 전시 및 출판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쓸 참여자들의 사진을 찍었다.



## 사업 참여 소감

### 1 기업·기관 소감

좋은 기회로 이영아 작가님과 협업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우리 이바구캠프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사진 및 영상 작업에 최대한 녹여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굿모닝 예술인> 사업은 단순 인력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업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한 예술적 영역을 외부 예술인과의 매칭을 통해 연결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사업인 것 같다. 사업 초기 예술인이 추구하는 방향,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조율한다면 서로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렇게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로 연결되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다. 몇 개월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가님!

### 2 예술인 소감

먼저 정기적인 수입이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굿모닝 예술인> 사업뿐 아니라 개인적인 작업과 전시를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지 않은 적이 처음이었다. 작고 크고를 떠나 정기적인 수입이 작가로 생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느꼈다.

이바구캠프에서 협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회와 만났다. 개인 작업을 할 때는 관계 맺기가 협소할 수 밖에 없는데 캠프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더 알게 되었다. 이바구캠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한다기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시간을 보냈다. 다만 내가 여기에 부응해 원하는 접점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늘 고민이었다.

이 사업에서 나는 수도 없이 '쓸모'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쓸모 있는 작업을 하는 것. 단순히 시장이나 기관에서 쓸모 있는 것을 넘어 여러 생각을 하게 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작가로 사는 것이 쓸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쓸모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롭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나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 3.

## <굿모닝 예술인> 성과 공유회

### — 'See You Again 예술인X기업(기관)'

#### 행사명

2019년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성과공유회  
— 'See You Again 예술인X기업(기관)'

#### 일시

2019. 12. 06 (금) 16:00 - 19:00

#### 장소

대연동 노드 아트홀

#### 행사내용

-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협업프로젝트  
성과공유(사례발표) 및 네트워킹 장
- 성과전시회를 통한 협업프로젝트 결과 전시  
(아트상품, 사진 및 영상 등)

#### 참여대상

사업 참여 예술인 20명  
기관(기업) 대표·담당자 등 40여명



2019 예술인 일자리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은 20명의 참여 예술인과 20개의 기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장이었으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시

곳즈

◦옥진화 X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민걸 X 부아공



◦심성아 X 스텝하우스



◦전혜진 X 주식회사 아트현



◦김범수 X ㈜스페이스움



◦송기철 X 열린문화공동체 락



◦고정화 X 영도문화원



사진/영상

◦임상훈 X 그린섬유



◦최정은 X ㈜예술은공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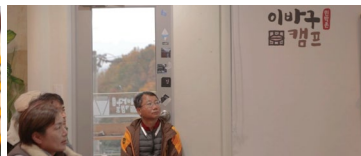
◦김나희 X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강미혜 X 이중섭문화마을



◦이영아 X 주식회사 이바구캠프



◦홍석진 X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박은주 X 온새미학교



사례발표



◦남진우 X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박가범 X 디자인 디

◦이효선 X 주식회사 핑크로더

◦김효영 X 모퉁이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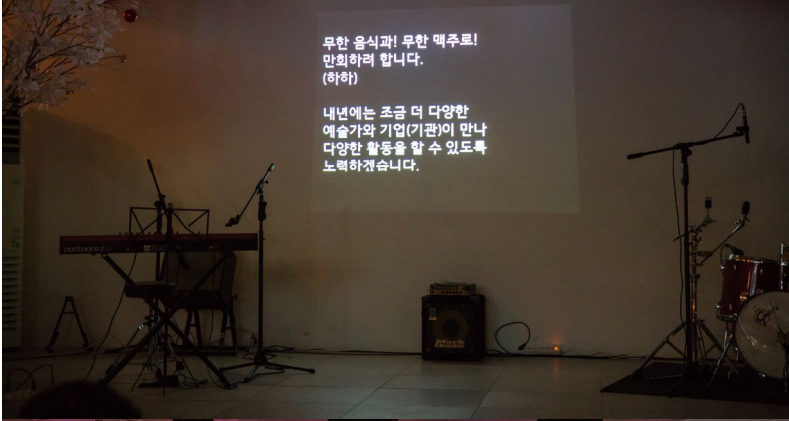
◦김혜영 X 미디어리협동조합

◦이미주 X 부산박물관

### 3-2

### 성과공유회 현장 스케치











**2019년 부산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예술인 결과자료집>**

(재)부산문화재단 발간번호  
**2019-030호**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16 ~ 7218  
F. 051-745-7708  
E. bscfcenter@bscf.or.kr

**발행인**  
강동수

**편집기획**  
성유정, 이주영, 유반야

**디자인 및 제작**  
하마맨션



(재)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16 ~ 7218 F. 051-744-7708~9

E. [bscfcenter@bscf.or.kr](mailto:bscfcenter@bscf.or.kr)

